



## 2007년 임단협 발효... 기본급 4% 인상 의무휴가 7일서 9일로, 무급휴직제 시행 합의

2007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이 노사 합의로 공식 발효됐다.

이봉준 노동조합 위원장과 김기서 사장은 11월30일 조인식을 갖고 기본급 4% 인상을 뼈대로 하는 임금협약과 연간 의무사용 휴가일수 연장 등을 담은 단체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임금협상에서 노조는 당초 총액 대비 9.5% 인상(기본급 6%)을 요구했다. 이는 노조가 지난 9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6.7%가 올해 물가인상률과 근로여건 악화 등의 이유로 임금이 9% 이상 올라야 한다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사측은 임금협상 초기부터 대내외 여건을 들어 인상치가 너무 높다고 난색을 표명하면서 3%의 기본급 인상을 노조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3% 인상안을 거부하고 4% 이상의 기본급 인상과 특별상여금 지급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20여일 동안 7차례에 걸친 실무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기본급 4% 인상에 합의

했다. 노사는 또 단체협약을 통해 연간 의무휴가일수를 종전 7일에서 9일로 이를 늘리기로 했고 외조부모상 휴가일수도 종전 2일에서 3일로 연장해 조부모상과 차별을 없앴다.

매번 선정작업이 늦어지면서 업무파악에 애로가 많았던 해외특파원의 경우 노조의 요구에 따라 전임자 임기종료 6개월전 선발하도록 뜻을 모았다. 경조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조가 애초 모든 경조금의 100% 인상을 요구했지만 부모상(배우자 부모 포함)에 한해서만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부모상 조의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조합원들의 큰 관심을 끈 자비연수제는 일단 내년부터 시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연수자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애초 노조는 회사지원 및 외부연수와 별도로 연간 2명까지 자비연수제를 시행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다. 하지만 사측과 논의 끝에 연간 한명까지 1년이



11월30일 오전 11시30분 7층 회의실에서 열린 2007 임단협 조인식에서 이봉준 노조위원장과 김기서 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내 무직 휴직제를 보장하는 선에서 협의를 마무리지었다.

이밖에 단협사항은 아니지만 회사내 금연 계도에 함께 노력하는데도 노사가 뜻을 같이 했다. 노조는 앞으로 사

측과 협의해 사내에서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를 벌일 계획이다.

## 사원 절반 이상 질병 소견.. 건강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

### 질병 3개 이상 소견자만 32명.. 검진기관 다변화로 하나로 · 강북삼성병원 검진율 높아

올해 실시한 사원 건강검진 결과 전체 검진 사원의 절반이 넘는 53.98%(373명)가 질병 유소견자로 파악됐다. 질병 유소견자란 각종 검진항목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 이상의 징후가 하나라도 관찰된 것을 의미한다.

회사측에 따르면 올해 건강검진을 받은 사원은 전체 707명 중 97.88%에 달하는 691명으로 집계됐다.

미수검자는 모두 15명이었는데 해외연수(5명)와 특파원 부임(2명), 출산휴가(2명) 등의 피치 못할 이유를 빼고 아무 이유없이 검진을 받지 않은 사원도 6명이나 됐다.

배우자 가운데는 대상자 106명 중 모두 81명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이 76.42%에 그쳐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부터 검진기관이 다변화되면서 사원들과 배우자들이 이용한 검진기관도 변화 추세를 보였다. 기관별 수검률을 보면 하나로의료재단이 사원 71.9%, 배우자 44.4%로 여전히 수검률이 높았으며, 다음으로 강북삼성병원(사원 8.1%, 배우자 18.5%), 순천향대병원(사원 2.6%, 배우자 7.4%), 일산병원(사원

1.01%, 배우자 7.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건강검진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질병 소견이 3건 이상 중복된 사원이 32명(3건 이상 29명, 4건 이상 3명)으로 건강관리에 적신호가 켜진 사원이 상당수였다는 점이다.

각 질환별로는 대사증후군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인 고지혈증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을 포함한 간장질환이 16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지혈증 진단 건수 중 절반 이상이 '향후 자기관리' 수준의 경미한 진단을 받은 것과 달리 간장질환 소견을 받은 사원 중 69.1%(112명)가 추적검사가 필요하다거나 상담 후 치료(11명) 수준으로 분류돼 간장질환에 대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됐다. 전문가들은 간장질환의 경우 '추적검사' 단계에서 적절히 관리하지 못할 경우 예후가 아주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밖의 질환으로는 신장질환(69건), 흉부질환(33건), 고혈압(28건), 당뇨(26건), 빈혈(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질병 유소견자들의 연도별 추이에서도 사원들의 건강 악화세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05년에는 '추적검사' 소견을 받은 사원이 216명에 그쳤지만 2006년에는 219명, 2007년에는 295명으로 급증한 것.

이는 올해 혈압이나 혈당 수치가 '전조단계'에서도 추적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기준치가 상향조정된 탓도 크지만 사원들이 초기 질병 소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균관대의대 강북삼성병원 산업의학교실 유승호 교수는 "검진을 받다보면 특정 부위에 질병 소견이 있는데도 1~3개월 이내에 경과관찰을 받으러 오라는 의사의 별도 지시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건강검진 결과에 의문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의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게 바람직하다"면서 "특히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체중변화는 과거자료와 현재의 검진 결과를 비교해서 보는게 게 좋은 만큼 검진기관을 옮겼다면 건강관리 결과표를 최소 5년 이상 관리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



# '2007년 임.단협 타결' 무엇이 달라졌나

2007년도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의무휴가 일수가 종전보다 이를 늘어났다는 점이다.

7일이던 의무휴가 기간을 9일로 늘린 것은 노동조합이 자비 연수제 등과 함께 단체협상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요구사항 가운데 하나였다.

다만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수당 공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만약 조합원이 한 해 동안 8일이나 9일간 휴가를 다녀왔다면 연월차 수당에서도 각각 8일과 9일치가 공제되지만 7일만 사용했을 때는 7일분만 공제된다.

조합원들의 재충전 및 자아 실현 기회 확대를 위해 노조는 회사원 및 외부 지원 연수 인원과 별도로 연간 2명 한도 내에서 자비 연수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이 인력 운영 관계로 난색을 표함에 따라 한 명 한도로 1년 이내 기간의 무급 휴직 기회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의 근거는 '일신상의 사정으로 부득이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을 요청할 때 회사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단협 제36조 2항이며 구체적인 휴직 사유는 노사간 추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외조부모 상을 당했을 경우 이들에 그쳤던 경조휴가를 조부모 상 때와 같은 3일로 확대해 달라는 노조의 요구와 2명의 자녀가 동시에 유치원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는 회사가 모두 원안 그대로 받아들였다.

단협안 가운데 해외 특파원 선발 규정을 준수해 달라는 항목과 사무실 내 흡연을 삼가 달라는 내용은



11월2일 오후4시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임단협 상견례에서 노·사 양측이 안건을 협의중이다.

노·사 양측이 함께 단협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으나 전자에 대해서는 전임자 임기종료 시점보다 적어도 6개월 이전에 후임자를 발령하기로, 또 후자에 대해서는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각각 뜻을 모았다.

노조의 상급단체, 즉 언론노조에 파견할 전임자가 생길 경우 우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단협 안건은 노조가 협상과정에서 철회했다.

노조는 이 같은 단협안과 임금인상률에 대해 지난

11월 28일 제3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추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날 참석한 일부대의원들은 올해 임금인상률이 예년의 인상률과 올해 경영실적 등에 비춰볼 때 낮다면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노조는 당초 조합원들의 의견대로 총액대비 인상되는 임금의 대부분을 기본급으로 올려 달라고 회사에 요구했지만 실무 협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내외적 요인을 내세우는 회사 측 요구를 감안해 낮은 수준의 기본급 상승률을 수용했다.

## 경조비, 경조휴가 잘 알고 썩시다

2007년 노사 단체협약이 발효되면서 경조휴가 및 경조비 지급 규정이 달라졌다. 노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비 및 경조휴가에 대해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은 만큼 이번 단협 개정사항과 함께 표로 정리해본다.

보통 경조비 중 본인이나 자녀의 결혼, 부친상·모친상 등은 사내계시판을 통해 알려지기 때문에 본

인의 신청 없이도 노조나 회사에서 경조비를 지급한다. 하지만 부모회갑이나 배우자의 부모회갑 등은 노조나 회사에 알려야만 경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노조와 회사에서 주는 경조비 항목도 각기 다른 만큼 알아두는 게 좋다. 경조휴가도 경조비가 지급되지 않지만 휴가는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 만큼 꼼꼼히 챙겨보기 바란다.

## 내년엔 의무휴가 9일.. 적극 활용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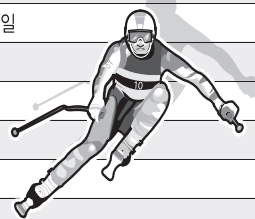
내년부터 전 사원이 의무휴가 9일을 쓸 수 있게 됐다. 부서별로 업무량에 따라 휴가 사용일수의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의무휴가일수가 늘어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활동이 좀 더 활발해질 것으로 노조는 기대하고 있다. 변경된 의무휴가 9일을 포함한 연차별 연월차 휴가일수를 정리해본다.

경조휴가	일수
본인 결혼	7일
배우자 사망	7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승중손은 조부모) 사망	7일
형제자매 및 자녀 사망	5일
배우자 출산	2일
자녀 결혼	1일 (지방은 2일까지 가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회갑	1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1일 ( " )
배우자 탈상	1일 (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탈상	1일 ( " )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2일 ( " )
백숙모 사망(다만 배우자 백숙부모는 1일)	3일
외조부모 사망	3일* (기준 2일)
손자 사망	2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증조부모 사망	3일
동거친족 사망	1일
고모, 외삼촌, 이모 및 그 배우자 사망	2일
형제자매의 자녀 및 배우자 사망	2일
자녀의 배우자 사망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칠순생일	1일

경조비	구분	조합	회사	사우회
축의금	본인 결혼	10만원	50만원	20만원
	자녀 결혼	10만원	20만원	10만원
	부모 회갑	10만원	20만원	10만원
	배우자 부모 회갑	10만원	20만원	10만원
	부모 칠순	10만원	-	-
	배우자 부모 칠순	10만원	-	-
조의금	출산(본인, 배우자)	꽃바구니(5만원 상당)	10만원	-
	배우자	20만원	50만원	30만원
	부모	20만원	*100만원(기준 50만원)	20만원
	배우자 부모	20만원	*100만원(기준 50만원)	20만원
	자녀	10만원	30만원	10만원
	승중상	10만원	30만원	20만원
위로금	형제·자매	10만원	-	-
	배우자 형제·자매	10만원	-	-
	본인 입원	10만원(2주 이상)	10만원(7일 이상) 20만원(15일 이상)	15만원(수술로 7일이상 입원시)
	배우자 부모 칠순생일	10만원	10만원(7일 이상) 20만원(15일 이상)	15만원(수술로 7일이상 입원시)

\* 2007. 11.30 임단협 결정(2007.12.1 시행)

입사일	휴가일수
1988년 1월1일 이전 입사자	25일
1988년 1월2일~1990년 1월1일	24일
1990년 1월2일~1992년 1월1일	23일
1992년 1월2일~1994년 1월1일	22일
1994년 1월2일~1996년 1월1일	21일
1996년 1월2일~1998년 1월1일	20일
1998년 1월2일~2000년 1월1일	19일
2000년 1월2일~2002년 1월1일	18일
2002년 1월2일~2004년 1월1일	17일
2004년 1월2일~2006년 1월1일	16일
2006년 1월2일~2008년 3월 15일	15일
2008년 3월 16일~4월 20일	12일
4월 21일~5월 14일	11일
5월 15일~6월 8일	10일
6월 9일~7월 2일	9일
7월 3일~7월 26일	8일





# 알고 있으면 좋은 사내외 대출 제도

올해는 지난 9월 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지방 단독주재 지역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이 확대되는 등 일부 대출제도가 변경됐다. 사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내외 각종 대출제도를 알아본다.

## ◆ 노동조합 대출

노조 기금은 조합원이 대상으로 신청 당일 또는 다음날 최고 3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연리 4%에 원리금은 급여에서 균등 공제되며 상환기간은 10개월이다. 단 주택자금, 노조원 가족 의료비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면 최고 500만원까지 대출금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대출기간도 15개월까지 연장된다.

## ◆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사 동수로 운영되는 기금운영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운영되는 자금으로 무상과 유상으로 구분된다.

### ① 무상대부

#### ☞ 의료비

사원 본인 또는 가족들에 대한 의료비를 10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해준다. 3년 균등상환이다.

#### ☞ 국내 지방 단독주재 및 해외특파원 생활안정

단독주재 지방에 발령된 사원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최고 1천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이 대출금은 3년거치 6개월 이내 또는 주재 해제 발령시 갚아야 한다.

단 지방 단독주재의 경우 1천만원의 무이자 기금으로 부족하다면 연간 3%의 금리로 1천



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2007년 9월 노사협의회 합의)

#### ☞ 지방 순환근무 발령자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대부

수습기자 종료 후 지방 순환근무 차원에서 지방으로 발령받은 사원이 근무지에서 주택을 임차하고자 할 때는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고 1천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대출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연이율 3.0%의 유상대부가 된다.

## ② 유상대부

### ☞ 주택신축, 구입 또는 임차자금

- 신축·구입 : 2년 이상 근속하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이상인 사원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25.7평, 85㎡ 이하)의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할 경우에는 연이율 3%로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 임 차 : 1년 이상 근속 1년이상 무주택 사원이 주택을 빌릴 경우에는 연이율 3%로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 상 환 : 상환 조건은 모두 균등분할 또는 중도일시상환이 가능한데 기간은 500만원미만(3년),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4년),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5년), 2천만원 이상(7년) 등으로 다르다.

## ◆ 사우회 대출

사우회에서는 연리 3.5%로 500만원까지 대출해준다. 상환조건은 2년균등상환이다.

## ◆ 사외 대출<한국언론재단언론인기금>

언론재단에서 언론사 종사자에게 대출해주는 기금이다. 대출한도는 생활자금 1천만원(연이율 6%, 2~3년 상환), 주택자금 4천만~6천만원(연이율 4.8%, 10~20년 상환, 근저당 설정)이다. 주택자금 중도금은 1천500만원(연이율 6%, 5년 상환)을 빌릴 수 있다.

대부자격은 일정 근속기간(생활자금-1년, 주택자금-2년)이 경과된 언론사에서 근무하는 정사원으로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25.75평 이하에 한한다. 신청은 회사 경리부를 통하면 된다.

## 이달의 참글상

# ‘올해의 참글상’ 추천하세요

## ‘이달의 참글상’에는 격려상 1편... 김태종 조합원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성기홍)는 내년 1월10일까지 ‘올해의 참글상’ 수장작 후보를 추천받는다.

이 상은 참글상(상금 100만원)과 격려상(상금 50만원)으로 나뉘는데 말 그대로 올해 연합뉴스에서 내보낸 최고의 ‘참글’이라는 의미가 부여된다.

수장작 선정은 전년 12월부터 당해 11월까지 송고된 기사 가운데 조합원들로부터 후보작으로 추천 받은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같은 기간 ‘이달의 참글상’ 대상을 받은 기사는 자동으로 후보작에 추천된다.

공보위는 추천된 기사들 가운데 자본과 권력에 대

한 비판과 견제, 소외계층 보호, 갈등해소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기여도 등을 심사해 올해의 참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심사 기간에 ‘이달의 참글상’ 대상을 받은 작품은 사회부 사건팀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 폭행’ 관련 보도 1건이었다.

한편 노조 공정보도위원회(간사 성기홍)는 이에 앞서 제137회 이달의 참글상(11월 송고분) 추천작 2건에 대해 심사를 벌인 끝에 격려상으로 사회부 김태종 기자(사진)의 『“판사님, 아빠를 한번만 용서해주세요”』를 선정했다.

이 기사는 선고를 앞둔 피고인의 딸이 아빠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게 자신이 옆에서 지켜보겠다며 ‘아빠를 한번만 용서해 달라’며 담당 판사에게 직접 편지를 쓴 편지 내용을 담고 있다.

김 기자의 기사가 나간 뒤 주요포털 ‘대문’에는 이례적으로 하루종일 기사가 올라와 있었는데 네티즌들의 관심도 폭발적이어서 포털 ‘다음’에는 1천개가 넘는 엄청난 양의 격려와 함께 따스함을 전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다. 또 네이버에서는 ‘한주간 댓글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취재기자에게는 판사에게 힘을 북돋아 주고 편지를 보낸 딸이 꼭 소원을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격려가 쇄도해 훈훈한 세밑 분위기를 느끼게 했다.

올해의 참글상과 12월 송고분에 대한 참글상 후보 기사 추천은 노조(nojo@yna.co.kr)나 각 부서 공정보도위원에게 추천기사를 1월10일(목) 내에 제출하면 된다.



최전선에서

#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멤뽕’ 취재 5일



백도인 전북취재본부

태안 앞바다에서 유류 유출사고가 났다는 데...”

“어쩌다 그런 일이 쫓쫓...그나저나 대전·충남취재본부 선후배들 고생 좀 하겠네”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 유출사고가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전북에 있는 나에게는 그렇게 ‘머나 먼 남의 나라’ 이야기로 들렸다.

사고 나흘째인 12월10일. 아버지의 수술 때문에 휴가를 내고 병원에서 간병을 하고 있을 때만해도 이 대형사고는 여전히 남의 일일 뿐이었다.

아버지 머리맡에서 까막까막 졸고 있을 즈음인 오후 5시경.

조순래 전북본부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날아왔다. “네가 가서 일을 좀 거들어야겠다. 내일 오전 9시까지 방제대책본부가 있는 태안 해경으로 가라.”

“오~잉!!”

이 한 통의 전화로 잠은 확 깼고 태안 앞바다는 졸지에 내 ‘나와바리(담당 구역)’가 되어 버렸다.

집으로 돌아와 부랴부랴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해야 최소한의 ‘밥값’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지난 기사를 하나 둘 검색하고, 당장 내일 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부산하게 머리를 돌렸다. 하루 이틀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 옷가지를 넉넉하게 싸며 ‘전의’를 다졌다.

노부모와 아내는 “추운데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이었지만 ‘무슨 말씀!’, 나에게는 대단한 ‘횡재’였다. 기자생활하면서 언제 그런 큰 현장을 직접 겪어볼 수 있겠는가. 두고 두고 내 자산이 되리라.

다음날(11일) 새벽 6시30분, 세상 모르고 잠이 든 두 살배기 쌍둥이를 뒤로 하고 노트북에 사진기, 캠코더, 옷가방을 바리바리 싸든 채 태안으로 향했다.

태안은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선후배들에게 ‘전입신고’를 마치고 둘러본 유류 유출사고 현장은 기사와 사진으로 접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참담했다. 하얀 모래사장은 온통 검은 기름띠로 뒤덮여 있었고 쪽빛 바다는 검은 물감을 풀어놓은 듯했으며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에 잠시만 서 있어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

예기치 못한 기름의 습격에 조개며 굴, 갯지렁이 같은 저서생물은 말 할 것도 없고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남아있는 생명체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거대한 죽음의 바다로 변해 있는 태안반도의 모습은 이 사고가 어디까지 번져갈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게 했다.

사고의 파괴력과 파장은 취재진의 규모와 취재열기에서도 그대로 묻어났다. 해경 방제대책본부가 마련된 태안 해경의 좁디 좁은 기사실에는 전국에서 몰려든 200~300여 명의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막내인 박주영 기자는 새벽마다 자리를 확보하느라 진땀을 빼야했다.

하루의 시작은 늦은 저녁식사를 마친 오후 9시 이후부터였다.

사건 캡인 정운덕 선배와 태안 주재인 윤석이 선배를 필두로 김준호, 박주영, 임현정 기자가 한 자리에 모여앉아 각 분야의 동향을 보고하고 내일의 ‘야마’를 잡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중앙지들이 교육을 겸해 수습 기자들까지 전원 현장에 파견하는 바람에 기사 전쟁도 더욱 치열해진 만큼 회의는 항상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정 선배는 태안군청을 중심으로 기름 유출 사고가 불러온 각종 사회현상을, 윤 선배는 대책본부에 상주하며 시시각각 달라지는 피해 및 방제 상황을, 세후배 기자는 현장을 발로 뛰며 생생한 피해 실태와 주민표정, 사진 등을 나눠 맡았다.

‘오일볼’, ‘타르볼’, ‘유화제’ 등등 난생 처음 듣는 용어들이 난무했고 사안이 민감한 만큼 사고 조사상황 등에 대한 브리핑은 허술하기 짝이 없어 모두 애를 먹어야 했다. 후배들은 특히 칼바람 속에서 변변히 밥 한 끼 챙겨 먹지 못한 채 하루 종일 기름 범벅이 된 바닷가를 맴돌아야 했다. 그러나 정교하게 조립된 톱니바퀴처럼 빈틈 없이 제 몫을 해냈고, 사고가 장기화되며 지칠 법도 했지만 누구 하나 내색하지 않았다.

선배들은 자청해서 어렵고 복잡한 기사를 도맡았다.

후배들은 방제작업에 나선 어민들보다 더 어민스럽게 몰골이 험해져 갔지만 마냥 신바람을 냈다.

해양수산부를 맡은 이윤 기자는 중요한 고비마다 기사 흐름을 짚어갔고 정태진 대전본부장은 매일같이 사무실에서 새우잠을 청하며 쏟아지는 기사를 처리했다.

저는 뭐했냐고요? ‘멤뽕’답게 그때 그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며 눈치껏 밥값을 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밖에...

그렇게 정신없이 5일을 보낸 15일 토요일 오후, ‘사고가 수습국면에 들어간 것 같다’며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

“이제야 분위기 파악하고 일 좀 하려 했는데...”

모처럼 한 자리에 모여 밤 늦도록 진한 소주 폭탄주를 돌렸지만 고생하는 선후배들을 남겨두고 혼자 떠나려니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아직도 기름띠와 싸우고 있는 태안의 선후배님들! 힘내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파이팅!”

## 노조 지방부 신설

### 첫 지방부장에 이재현 조합원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8일 제3차 대의원대회를 열어 현 집행부에 ‘지방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노조규약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현재 노조 집행부는 총무, 교육, 쟁의, 조직, 조사, 복지, 선전, 여성부에 지방부가 더해짐으로써 모두 9개 부서가 됐다.

첫 지방부장에는 강원취재본부 이재현 조합원(사진)이 선임됐다. 이 조합원은 강원도민일보에 근무하다 2004년 2월에 연합뉴스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한 뒤 강원취재본부의 주춧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지방부장은 “앞으로 지방과 본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조합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취임 포부를 밝혔다.

## 노조 상반기 회계감사 소견 ‘적정’

노동조합은 지난 11월 21일 제20대 집행부 상반기((2007.3.1~2007.8.31) 회계감사를 벌여 ▲총무(일반 운영비) ▲복지(비디오 구입 및 자판기 수입) ▲대출(조합원 대출용 기금) 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노조의 전체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점검했다. 현재 노조 감사는 임상수·이주영 조합원이 맡고 있다.

감사결과 노조의 상반기 총무부문 순수익은 15,404,250원이며, 복지 부문 총수입과 지출은 각각

102,910원, 1,937,200원으로 순수익은 -1,834,290원으로 나타났다.

대출부문 총액(미수금 포함)은 188,597,972원으로, 이 기간 대출 신청자는 38명, 대출 미수금 123,273,000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상반기 노조기금의 총 잔액은 정기예금 240,000,000원 포함, 총 379,097,274원(대출 미수금 제외)으로 감사의견은 ‘적정’한 것으로 평가됐다.